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쌍주기연2

작자 미상 · 고전 국문 소설
2025년 9월 고1 · G202509H1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목차

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표지·목차	1쪽
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	2쪽
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	3쪽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	4쪽
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509H1-SR-REV20261022-R3

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암기 그림 1 · 떠나려는 서 공자를 왕 공자가 말리다 → 석파가 구슬을 가지고 안채로 들어가 알리다

1



2



3



떠나려는 서 공자를 왕 공자가 말리다 → 해어진 비단 주머니를 보고 석파가 구슬을 청하다 → 석파가 구슬을 가지고 안채로 들어가 알리다

1. 떠나려는 서 공자를 왕 공자가 말리다 [1] [2] [3]

부모의 행적을 찾아 떠나려는 서 공자에게 왕 공자는 공부와 급제를 먼저 권한다. 서 공자는 당장은 머물지만 뒤의 혼인 권유까지 자동으로 수락하는 것은 아니다.

2. 해어진 비단 주머니를 보고 석파가 구슬을 청하다 [4] [5] [6] [7]

해어진 주머니를 새로 지어 달라는 부탁에서 구슬의 내력이 나온다. 혜란의 구슬을 아는 석파가 보여 달라고 청하면서 두 정보가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.

3. 석파가 구슬을 가지고 안채로 들어가 알리다 [8]

웅 글자가 있는 구슬을 본 석파는 안채로 들어가 유 씨에게 알린다. 구슬을 내보인 서 공자와 소식을 옮긴 석파의 행동을 구별한다.

암기 그림 2 · 두 구슬이 신통히 같다 → 사랑채에서 떠보자 서 공자는 조롱으로 알아듣다

4



5



6



두 구슬이 신통히 같다 → 부인 유 씨가 혼례를 명하다 → 사랑채에서 떠보자 서 공자는 조롱으로 알아듣다

4. 두 구슬이 신통히 같다 [9] [10]

짝 구슬을 찾지 못해 걱정하던 유 씨는 직접 받은 구슬을 딸의 것과 대조한다. 자웅의 짝이 확인되면서 걱정이 놀람과 기쁨으로 바뀐다.

5. 부인 유 씨가 혼례를 명하다 [11] [12] [13] [14]

유 씨가 아들에게 내력을 알리고 혼례를 진행하라고 명한다. 왕 공자도 인연의 신통함에 감탄하지만 서 공자의 수락은 아직 별도 단계로 남아 있다.

6. 사랑채에서 떠보자 서 공자는 조롱으로 알아듣다 [15] [16] [17] [18]

왕 공자는 실제 내력을 바로 말하지 않고 가정형 질문을 던진다. 서 공자는 곡절을 몰라 조롱으로 이해하고, 부모가 준 물건이어서 지녔다고 설명한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1. 행적

뜻 지나온 자취.

배경 行蹟 행적

작품 속 쓰임 지나온 자취. 「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남방에 가 자세히 듣고자 하여」[1] — 서 공자가 길을 나서려 한 까닭이다.



2. 급제

뜻 과거에 붙음.

배경 及第 급제

작품 속 쓰임 과거에 붙음. 「형은 다만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면 자연 알 것이니」[2] — 왕 공자가 드는 것은 언제나 현실의 이치다.



3. 곡절

뜻 까닭·사정.

배경 曲折 곡절

작품 속 쓰임 까닭·사정. 「안채로 들어가 부인 유 씨에게 이 곡절을 고하였다」[8]와 「어떠한 곡절인지도 모르고」[17] — 아는 이와 모르는 이가 갈린다.



4. 자웅

뜻 암컷과 수컷 — 여기서는 짝이 되는 두 구슬.

배경 雌雄 자웅

작품 속 쓰임 암컷과 수컷 — 여기서는 짝이 되는 두 구슬. 「이 구슬의 자웅(雌雄)을 가지고 가서」[14] — 제목 「쌍주(雙珠)」가 곧 이것이다.



5. 정혼

뜻 혼인을 미리 정함.

배경 定婚 정혼

작품 속 쓰임 혼인을 미리 정함. 「웅 글자가 쓰인 구슬을 가지고 있는 이를 찾느라 정혼하지 못하였도다」[20] — 구슬이 곧 조건이었다.



6. 소제

뜻 아우뻘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.

배경 小弟 소제

작품 속 쓰임 아우뻘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. 「소제(小弟)는 이 세상의 죄인이나이다」[22] 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생사를 몰라서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1.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 (1) 왕 공자가 떠나려는 서 공자를 말리다 (2) 석파가 안채에 구슬을 알리다 (3) 부인 유 씨가 혼례를 명하다 (4) 서 공자가 혼인을 미루다 (5) 월향이 제왕을 꾸짖다

① (2)→(1)→(3)→(4)→(5)

② (1)→(3)→(2)→(4)→(5)

③ (1)→(2)→(3)→(4)→(5)

④ (1)→(2)→(4)→(3)→(5)

⑤ (1)→(2)→(3)→(5)→(4)

2.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「부인 유 씨가 마음 가득히 아주 기뻐하며」[13]로 보아, 부인 유 씨는 서 공자에게 과거에 합격하는 대로 혼인할 것을 제안했다.

② 「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남방에 가 자세히 듣고자 하여」[1]로 보아, 서 공자는 부친의 소식을 알기 위해 남방으로 가고자 하였다.

③ 「형은 다만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면」[2]으로 보아, 왕 공자는 떠나려는 서 공자를 말리며 공부에 힘쓸 것을 권유했다.

④ [25]에서 납치된 사람이 왕혜란이 아님에 놀라고 [29]에서는 왕 소저를 놓친 일에 분함을 느낀다.

⑤ 「그날 밤에 변고가 있을 줄 짐작하시고」[28]로 보아, 왕혜란은 자신에게 변고가 일어날 것을 짐작하여 미리 몸을 피하였다.

3. [A], [B]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[A]에서는 「형의 은혜를 여러 해 입었고」라 하여 상대에게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며 상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다.

② [B]에서는 「어찌 차마 이같이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시나이까?」라 하여 상대에게 행동의 이유를 물으며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.

③ [A]와 [B]에서는 모두 「소제(小弟)는 이 세상의 죄인이나이다」·「나는 서 원수의 부인의 시비 월향이오」라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.

④ [B]에서는 「만승천자(萬乘天子)의 금지옥엽(金枝玉葉)이요 천승군왕(千乘君王)이거늘」이라 하여 상대의 신분을 언급하며 그 지위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질책하고 있다.

3번 선택지 계속

⑤ [A]와 [B]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, [A]에서는 상대를 설득하고 [B]에서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.

4. 자웅의 구슬과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「구슬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밤낮으로 걱정하였다」[9]로 보아, 부인 유 씨가 딸의 혼사를 추진하지 않고 기다려 온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.

② 「형은 만일 자(雌) 글자가 쓰인 구슬이 있으면」[16]으로 보아, 서 공자가 자신의 정혼 상대로 왕혜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소재이다.

③ 「누이동생이 태어날 때 꿈꾼 이야기가 이상하였지만」[20]으로 보아, 서 공자와 왕혜란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배필로 정해져 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.

④ 「다름 아니라 나에게 누이동생이 있는데」[20]로 보아, 왕 공자가 서 공자에게 왕혜란에 대한 과거 내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.

⑤ 「석파 또한 왕 소저의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」[6]로 보아, 왕 공자가 자신의 누이와 서 공자가 서로 인연임을 우연히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소재이다.

5. 석파가 한 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「이것을 지어 무엇 하시려 하느뇨?」[5]로 보아, 서 공자의 사정을 이미 알고 물은 것이다.

② 「그 구슬을 조금 구경하사이다」[7]로 보아, 부인 유 씨의 명을 받아 구슬을 확인한 것이다.

③ 「실없는 석파가 널리 퍼뜨려」[18]로 보아, 서 공자의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옮긴 것이다.

④ 「석파에게 그 비단 주머니를 보여 주며」[4]로 보아, 석파가 먼저 구슬을 보자고 청한 것이다.

⑤ 「석파 또한 왕 소저의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」[6]로 보아, 양쪽을 다 아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나서서 안채에 알린 것이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